

부천 플라스틱 사출공장 “화재”

4월5일 5시17분 발생 인근 3개 공장 번져 ... 인명피해는 없어

4월5일 오후 5시17분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41 전자제품 사출공장인 T사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였다.

불은 인접한 공장으로 옮겨 붙어 모두 3개의 공장이 불에 탄 것으로 알려졌다.

다만, 공장 근로자들이 신속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.

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와 공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화인과 함께 피해액을 조사하고 있다. <저작권
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4/06>